

삼성·LG, 가전전시회에서 “한판”

라스베이거스에서 1월9일 개최 ... 울트라HD에 OLED TV 전시

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인 <CES 2013>이 현지시각으로 1월8일 오전 10시(한국시간 1월9일 오전 3시)부터 4일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.

2013년은 CES 역사상 가장 큰 전시장에서 열리며 삼성전자와 LG전자, Sony, Panasonic 등 세계적인 IT·가전기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3000여개 관련기업이 참가한다.

삼성전자는 <Journey Of Wonder>를 주제로 TV, 생활가전, 모바일제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.



우선 전시장 입구에 설치한 빅 스크린 TV 존 (Big Screen TV Zone)을 시작으로 2013년형 LED(Light Emitting Diode) TV와 프리미엄 PDP(Plasma Display Panel) TV 등 TV제품을 선보인다.

LED TV는 사용자의 시청 습관과 선호 콘텐츠 분석을 통해 TV 스스로 볼만한 실시간 TV 프로그램을 찾아주는 F8000와 듀얼코어 CPU를 적용해 빠른 사용환경을 제공하는 F6000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됐다.

또 프리미엄 모니터, 스마트 AV(Audio & Video), 냉장고와 청소기 등 생활 가전, 갤럭시 노트 10.1 LTE 등 모바일기기, 노트북 등도 전시한다.

LG전자는 2043㎡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500여개 가전제품을 전시한다.

Touch The Smart Life를 슬로건으로 정한 LG전자는 OLED(Organic Light Emitting Diode) TV, 울트라HD TV, 차세대 디스플레이, 스마트 가전, 등 고화질의 영상제품과 더 쉬워진 스마트 기기를 선보인다.

전시관 입구에 베젤(테두리)이 5.3mm에 불과한 55인치 사이니지 122대로 만든 초대형 3D 비디어 월을 설치해 관람객의 눈길을 끌 계획이며, 특히 최근 세계에서 처음 55인치 OLED TV를 출시하며 프리미엄 TV 시장 선점에 나선 LG전자는 <ㄷ>자 비대칭 구조 스탠드 디자인의 OLED TV를 처음 공개할 계획이다.

이와 함께 84·65·55인치 울트라HD TV, 지능형 음성인식 서비스인 Q보이스를 탑재한 2013년형 시네마3D 스마트TV, 2013년형 구글TV, 100인치 시네마 빔 TV 등 다양한 TV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 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1/08>